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내년 3~4월 착공”

윤장현 시장, 이달중 차량형식 조달청에 구매의뢰 일부 시의원 분리발주 반발 ... 예산심의 진통 예상

그동안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간 갈등으로 인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6일 “2호선 차량형식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조달청을 통한 조달구매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량 형식은 고무와 철제차륜(비퀴) 중 결정되며 2호선의 기본설계는 고무차륜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일정, 난공사 구간 등을 감안할 때 차량형식 결정 등을 더 미룰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시장이 이달 중 입찰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착공” 즉 민선 6기 임기 내 착공은 윤장현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밝힌 3대 원칙 중 핵심이다. 3대 원칙은 안전성, 기존 노선 유지, 임기 내 착공이다.

윤 시장은 빠르면 내년 3~4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입찰을 서두른 또 다른 이유는 사업추진이 지연되면 올해 편성한 174억원 미사용은 물론 내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차량형식은 기술(80%)과 가격(20%) 등을 더한 이른바 제안서 평가산사를 거쳐 결정한다.

이르면 7월 초 까지 차량형식이 결정되면 여기에 맞춰 터파기 등을 위한 구체적

인 실시계획 등이 진행된다.

차량과 신호분야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분리발주 할 계획이다.

촉박한 공사 기간을 고려해 차량형식과 입찰과 함께 실시계획 입찰도 거의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의 조달청 분리발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다, 시의 일방적 추진에 예산심의 권한을 통해 제동을 걸겠다고 버리고 있어 착공까지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의회에서 안전성과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통합발주를 주장했지만 신분당선 등 기존에 운영중인 도시철도에서도 문제가 없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연말 안에 선(先) 공사 구간은 설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무지구 한국은행에서 월드컵경기장 구간은 최

대 난공사 구간 중 한 곳으로 선착공한다.

윤시장은 이날 최종 발표에 앞서 이은방 의장을 만나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

한편, 2호선은 광주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으로 이어지는 41.9km의 순환선으로 모두 3단계로 나눠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예상 소요 사업비는 2조549억원이다.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 뒤 2010년 12월 예비 타당성 검토,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거친 뒤 논란 끝에 저심도 지하방식으로 결정됐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취임 후 건설 여부 재검토에 건설방식까지 오락가락하면서 2년 넘게 제자리걸음 한 뒤 차량형식, 입찰 방식 등을 놓고 시의회의와 갈등으로 반년 이상 지연됐다.

/최현석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中 장시성과 인문분야 교류 확대

전남도가 중국 장시성과 ‘2018 한·중 지방정부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인문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장시성 방문주간’ 행사를 2018년 전남에서 첫 개최하고 매 2년마다 서로 방면해 번갈아 개최할 것도 약속했다.

중국은 순방 중인 김갑성 행정부지사는 26일 장시성 난장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장시성 마오웨이 임 부시장과 회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마오 부시장과의 회담에서 ‘전남-장시성 방문주간’ 행사를 2018년 전남에서 첫 개최하고 매 2년마다 개최, 문화·예술 분야 민간교류 지원, 도자문화산업 협력 확대 및 민간교류 지원, 전세기 운항 등 관광산업 협력 강화, 유관기관 및 산하 지방정부 간 교류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류협력 확대 비장록에 서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거소투표용지 출력하는 선관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3일 앞둔 26일 광주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거소투표신청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세계 식용곤충산업 한눈에 본다

오는 10월 26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막하는 2017국제농업박람회가 미래농업의 핵심인 ‘세계 식용곤충산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세계 식용곤충산업과 관련된 기업,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하기 때문이다.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26일 “차세대 식량자원으로 각광받는 곤충

의 산업시장 비전과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국내 식용곤충산업 대표주자인 (주)KEIL & 한국식용곤충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식용곤충산업 심포지엄 개최 및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유럽, 남미, 북미 등 대륙별 식용곤충 사육법, 식품 제조공정, 제품 현황 등에 대한 열띤 토론과 최신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곤충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세계 곤충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귀뚜라미 사육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엔토포팜, 유럽시장을 흔든 폴란드의 하이프로마인, 곤충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씨푸푸드, 남미에서 원물을 그대로 활용한 멕시코의 멜스 메르카도, 미국 내 에너지바 시장 1, 2위를 다투는 카플, 하버드대의 투자를 받아 식용곤충사육을 진행하는 식스

푸드 등 업계 최고의 기업들이 참여한다.

국제심포지엄을 주관하는 (주)KEIL의 김용욱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첨단정밀농업, 친환경농업 관련 국제심포지엄은 물론, 한국환경농학회 및 쌀산학연협력단, 한우산학연협력단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행사를 준비해 기술교류 박람회로 치러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광역시 발표 국민연립 광주시당 권은희 상임선대위원장

“4차 산업혁명 선도, 5·18 규명 광주 미래발전 이끌 사업 중점”

지역 국회의원 나서 적극 실천 중기·중소상인 잘사는 도시로 남은 기간 정책선거로 승부



권은희 국민의당 광주시당 국민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은 26일 “국민의당 광주지역 대선 공약은 광주의 미래와 변화·혁신을 담은 것으로, 광주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광주지역 대선공약을 발표한 뒤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와 5·18 진상규명, SOC 사업 등 광주 미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광주와 전남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2명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다. 저희 당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역 국회의원을 모두가 나서 공약 이행을 추진할 것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예산을 챙기는 데 앞장설 것이다.

-광주지역 대선 공약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나.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도시다. 보수정권 10년간 소외와 홀대를 받아왔다. 이제 광주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4차 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뒀다. 여기에 미완의 5·18 진상규명과 5·18 정신의 계승 발전을 통한 광주정신 확립과 광주와 인근 지자체 등을 잇는 SOC사업 등을 포함시켰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

▲실제 바닥 여론과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것 같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다고 나오지만 연령대별 응답률과 가중치 등의 편차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듯 하다. 그런데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느끼는 체감은 좋다. 호남의 명령으로 창당한 국민의당이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에게 3당의 역할을 부여해 줬다. 이번 대선 승리만이 지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최현석기자 cki@kwangju.co.kr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향후 선거 전략은.

▲이번 대선은 혁신과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선거인데도 선거 초반 네거티브와 가짜뉴스가 판치는 선거전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았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까지 거짓과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정책선거로 승부하겠다. 지역민 속으로 들어가 느끼고 배우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광주의 미래와 변화·혁신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함께 호흡하면 선택해 줄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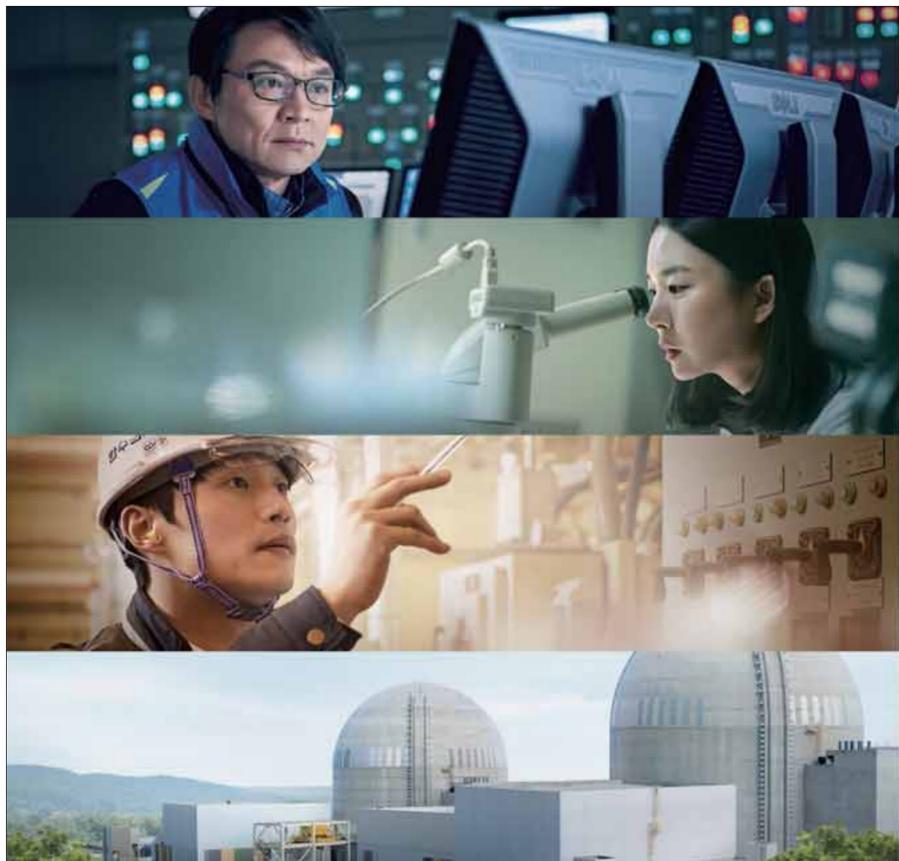
-젊은층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젊은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젊은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무엇이고,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시간을 많이 가질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닌 오직 국민의 나라다. 기성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놓았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두뿔 두뿔 걸어가고 있다. 분명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최현석기자 cki@kwangju.co.kr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3배 에너지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